

봉사의 행복을 전하고 싶어요

이제 갓 스무 살, 옛된 불살이 그대로 남아 있는 김민선 양은 봉사에 있어서 만큼은 작은 거인이다. 어려서부터 엄마를 따라다니며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를 해온 그녀에게 봉사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일 뿐이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미술 동아리에서 재능 기부를 통해 봉사를 계속했다. 척추 손상으로 누워만 있어야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천장에 벽화를 그려주기, 불우학생을 위한 미술치료 봉사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 장애인들에게 아름다운 하늘을 선사하고 하나라도 더 나누려는 김민선 양의 모습은 천사의 마음을 닮았다.

천장에 그려볼인 행복

2011년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던 한 여고생은 미술 동아리에 들어갔다.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열심히 미술 공부를 하던 그녀는 동아리 담당 교사와 함께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소망의 집’으로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봉사하는 것을 보고 자랐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그녀에게 소망의 집은 그리 낯설거나 어려운 곳이 아니었다.

그런데 소망의 집은 그 동안 가본 시설보다도 많이 열악한 곳이었다. 한겨울인데도 난방이 안 되어 방이 얼음장같이 차가운데 그곳에서 지내는 중증

장애인들은 내복 바람이었다. 척추손상으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하는 장애인을 보면서 그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단순히 수발을 들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무언가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동아리 담당교사에게 제안했다.

“선생님. 아이들이 누워만 있어야 하는데 누워서 볼 수 있도록 천장에 예쁜 그림을 그려주면 어떨까요? 우리가 미술 동아리인데 미술 재능을 살려서 장애아동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더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천장에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종이에 그려서 오려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도 호응을 해주었다. 미술 동아리 학생들은 용기종기 모여 뽀로로나 미키마우스처럼 밝고 사랑스러운 만화 캐릭터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을 본 장애아동이 누운 채로 환하게 웃는 게 보였다. 그림을 그리던 그녀도 마주보며 함께 웃었다.

장애아동이 환하게 웃어주는 게 정말 고마웠기 때문이다. 경기여고 미술 동아리 학생들의 소망의 집 천장 벽화 그리기 봉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3년간 총 300여점의 그림을 붙였는데, 불을 켜는 때도 보이도록 야광스티커까지 동원했다.

오래된 그림은 오려내고 다시 붙이기도 여러 번이었다. 오직 그 그림을 보는 아이들의 마음이 덜 외롭도록, 조금이나마 마음이 밝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고교시절 3년 동안 미술 동아리를 이끌면서 학교에 봉사와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고 졸업한 김민선 학생의 이야기이다. 그녀는 2014년 2월에 졸업하고 꿈꾸던 대로 세명대학교 산업디



봉사활동으로 행복을 전하는 김민선양

자인과에 진학했다. 그러나 고교시절 3년 동안 그녀가 보여준 행동은 모교에 잔잔한 감동의 여운을 남겨 놓았다.

김민선 학생을 지도하며 미술 동아리를 이끌었던 교사 박경구 씨는 김민선 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김민선 학생은 이제 졸업생이지만 그 학생이 보여준 열정, 배려, 노력의 결실이 열매가 되어 우리 학교 곳곳에서 맺히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여고에서는 봉사활동의 영향으로 긍정적인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어 사건 사고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후배들 가슴에 남아 있는 잔잔한 감동이 가장 큰 열매입니다.”



광남초등학교 건물 벽화(우측상단) / 장위동 밤골아이공부방 담장벽화(우측하단)

봉사는 거창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

김민선 양의 봉사활동을 이야기할 때 그 어머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그녀가 누군가를 돕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였는데 엄마

를 따라 호스피스 병동에 갔다가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리둥절해 하는 김민선 양에게 엄마는 “그냥 외할머니에게 하듯이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었다.

엄마는 젊은 시절부터 다니기 시작한 밤골아이 공부방과 호스피스 병동을 평생토록 오가면서 봉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김민선 양에게 산교육이 되었다.

가족이 함께 다니는 봉사활동은 김민선 양에게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김민선 양이 고등학교에 와서 미술 동아리 회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봉사활동에 그토록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던 것도 어린 시절부터 늘 해오던 일이기 때문이다. 가족과 더불어 봉사를 하던 김민선 양이 보다 주도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미술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마침 미술 동아리 담당 교사인 박경구 씨가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터라 마음이 잘 맞을 수 있었다.

“선생님, 오래된 벽에 벽화를 그려 주는 벽화 봉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 크리스마스 카드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소망의 집에 기부하면 좋을 거 같아요.”

“선생님, 겨울방학 동안 학교의 지저분한 쓰레기장 벽에다 천사의 날개 그림과 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등을 그려 넣어서 아름다운 공간으로 꾸미면 어떨까요?”

그때마다 박경구 씨는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었고 동아리 친구들도 덩달아 신이 나서 점점 봉사에 열정을 보이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재능기부 활동은 김민선 양이 다니는 경기여고 미술 동아리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갔다.

“어릴 때는 복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철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가 돈도 많아야 하고 땅도 사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술과 음악을 접목시킨 예술 치료로 사람들을 돕고 싶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 하는 전공에 최선을 다하려고요.”

바이올린을 비롯해서 음악에도 관심이 많은 김민선 양은 미술과 음악을 접



소망의 집(하남시) 천장화 작업



해금을 연주하는 재능기부동아리 학생

묵한 예술치료를 공부하고 싶어 한다. 디자인을 공부해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대학 공부가 더 재미있게 느껴진다.

이번에 '작은 영웅 10인'에 선정되어 받은 상품은 모교인 경기여고 미술 동아리에 모두 기부하고, 대학에서 영어성적 우수자로 선정되어 받은 장학금은 '소망의 집'에 내놓았다.

한창 꾸미고 싶고 사고 싶은 것이 많은 나이인데도 자기에게 쓰기보다는 남을 위해 쓰는 것에 인색하지 않다. 마치 매일 매일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듯이 봉사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는 김민선 양은 오늘도 무엇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그녀에게는 스무 살 감성처럼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천사의 날개가 있는 듯하다. ✨



Interview

김민선 / 대학생 천장 벽화 봉사자

“마음을 열기 줄 때가 제일 기뻐요”

Q. 미술 동아리에서 어떻게 재능 기부 봉사를 하게 되었나요?

A. 미술 대학을 가고 싶어서 미술 선생님을 찾아뵙고 미술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동아리는 활동이 거의 없어진 상태였거든요. 이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만 활동을 하는 건 부족하니까 밖에 나가서 벽화 그리기 같은 봉사를 하자고 했죠. 다행히 선생님하고 생각이 잘 맞아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작업은 고되지만 친구들과 나눠서 그린 그림이 하나로 합쳐지는 걸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Q. 만약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A. 만약 제가 고등학교 때 입시에 필요한 점수만을 목적으로 봉사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지금의 내 모습과 많이 달랐을 거예요. 점수가 목적이니까 몇 번 가다가 말았을 테고, 봉사 가셔도 형식적으로 대충 하게 되었을 거예요.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거니까 의무적이었겠죠. 지금처럼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또 자연스러운 일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Q. 장애인들을 돌보는 등 봉사활동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어린 나이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나요?

A. 물론 육체적으로는 피곤해서 힘들 수도 있고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게 무척 어려울 때가 있긴 해요. 그런데 힘든 것도 적응할 때까지가 그럴 뿐이지, 두세 번 가다 보면 재미도 붙고 힘든 것도 사라지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이 하나 더 생기는 것, 어떤 사람을 한 명 더 알게 되고 인연의 끈이 더 생기는 것... 그런 것에서 보람을 많이 느껴요.

Q. 봉사하면서 제일 기쁠 때는 언제인가요?

A. 그저 그분들이 웃는 것을 보는 게 제일 즐거워요. 처음엔 조금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시거든요. 그러다 자주 보고 마음이 통하다 보면 표정이 밝아지고 웃음을 보여주세요. 미소는 마음을 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때가 제일 기뻐요.